

202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26 3월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하였으며, 총평도 남겼으니 읽어봐 주세요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펜니노 불곰은 ㉠ 다른 불곰보다 공격성이 약하다. 과거 이탈리아에서 널리 서식하였으나 ㉡ 산림이 농지로 개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격성이 강한 곰들이 사람들에 의해 포획되며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서식 지역이 축소된 아펜니노 불곰은 ㉢ 유전자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연구자들은 약한 공격성과 연관된 유전자가 선택되어 아펜니노 불곰의 ㉣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현상에 비해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 ⑤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해설하기 앞서, 사문은 시간관리가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시간을 최대한 적게 쓰고,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은 '불곰의 공격성'이라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개입이 없죠? 즉 자연 현상입니다.

㉡은 '산림이 농지로 개간'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은 '유전자 다양성 감소'인데, 이는 가치 개입 없이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입니다.

㉣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생존율이 높아진 것 자체는 자연 현상이지만, 서술어는 '발표'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때, ㉠㉡㉢㉣ 총 4개를 바로 판정하여, 자 / 사 / 자 / 사로 염불을 외우듯이 기억해두고, 1번부터 바로 지워나갔습니다.

1번을 예시로 하면, 자 사 자 사 중 ㉠은 '자'이기에 가치 함축적 -> X로 바로 결과를 낸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번은 사회문화현상->확실성이 아니라 개연성이라 X

3번은 보편성은 자연 현상의 성질이지만 ㉣이 아니라고 했기에 X

4번은 ㉢(자연 현상)에 비해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했기에 O입니다.

5번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한다는 문제인데, 이는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X

즉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2. (가)와 달리 (나)에서만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가) 갑 지역의 전통인 ○○ 축제에는 갑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다. 현재 ○○ 축제의 공연은 전자 장비, 대중가요 등의 현대적 요소가 더해져 더욱 다채로워졌다.

(나) 을 기업에 신규 채용된 사원은 직원 연수를 통해 고유한 조직 문화를 익힌다. 구성원들은 공통의 행동 기준을 가지게 되어 원활한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진다.

- ①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 ②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한다.
- ③ 문화는 세대 간 전승에 따라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 ④ 문화는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체이다.
- ⑤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갖게 한다.

2번은 문화의 속성 문제입니다. ebs 기준 오답률이 70%를 넘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보시다.

문제는 (가)에는 없고, (나)에만 있는 문화의 속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부터 봅시다. 첫 문장은 '갑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문화의 공유성이, 두 번째 문장에서 '공연에 현대적 요소가 더해져 다채로워졌다'는 부분에서 문화의 축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에는, 직원 연수를 통해 고유한 조직 문화를 익히는 부분에서 문화의 학습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통의 행동 기준을 가지게 되어 분업과 협업을 하는 부분은 문화의 공유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공유성이 구성원 간 공유하는 공통적인 체계를 통해 구성원의 행동 방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하거든요.

즉 선지에서 골라야 하는 속성은 문화의 학습성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상징을 통한 후천적 습득 -> 학습성

오답선지도 보자면 2번은 변동성, 3번은 축적성, 4번은 전체성, 5번은 공유성입니다.

여기서 5번을 고른 비율이 무려 58.3%인데요, 아무래도 (가)의 첫 문장에서 공유성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문화의 공유성은, 인사 문화라든지, 식사 문화라든지의 예시를 주고 나라별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성질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문화의 공유성을 띤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의 속성 유형은 새롭게 떠오른 준킬러 유형으로, 퍼즐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독해를 통해 성질들을 숨겨두는 형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문화가 좋아하는 방식이죠. 예전보다 글을 더욱 꼼꼼히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3. 다음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 중반까지 대규모 포경에 의해 고래의 일부 종은 멸종 위기에 몰렸다. 언론을 통해 잔혹한 포획 실태를 접한 각국의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국제 시민 단체를 통해 ‘고래를 구하자’라는 구호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국제 사회를 움직여 포경을 제한하는 국제 합의로 이어졌다.

- ① 환경 문제는 국가들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② 현재 세대의 이익을 미래 세대의 이익보다 중시해야 한다.
- ③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④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 ⑤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 3번은 전형적인 독해 문제입니다. 개념이 뭐가 없어요. 그냥 제시문을 읽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본 후에, 선지에서 비슷한거 고르시면 맞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줄여봅시다. 진짜 가아곰 헛갈리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이런데서 2점 까이면 피눈물나요ㅠ

이번건 중간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민단체가 실천->국제 합의로 이어짐

정답은 4번이죠. 1번 2번 5번은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3번은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까진 아니어서 틀립니다.

4. 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임.) [3점]

| 질문 | 응답 | |
|------------------------|-----|-----|
| | A | B |
| 직업 간 기능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가? | 아니요 | 예 |
| (가) | 예 | 아니요 |

- ① (가)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가)에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⑤ A와 B는 모두 사회 불평등을 타파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4번은 후반부 개념에서 출제되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 비교 문제입니다.

이렇게 A,B를 주고 이 두 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에 드러난 요소를 통해 빠르게 판정하고, 선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선 온전히 드러난 표의 첫 줄을 보면, "직업 간 기능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가?"는 기능론이 예, 갈등론이 아니요입니다. 즉 A가 갈등론, B가 기능론입니다. 바로 선지로 넘어가 봅시다.

1번은 둘째 줄, 갈등론이 긍정하고 기능론이 부정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 (가)에, '불평등 현상의 보편성'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게, 보편성 자체는 두 관점 모두 긍정합니다. 불가피성, 즉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선 갈등론은 부정합니다. 여기서 보편성을 물어봤으니 둘 다 긍정이라 X조

2번은 "분배 기준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가?"인데 이는 갈등론이 긍정하고 기능론이 부정하죠. 옳은 선지입니다.

3번은 주어 끊고 보면 갈등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기능론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틀립니다.

4번은 역시 주어를 끊어서 보면 기능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를 갈등론으로 말하고 있어 틀립니다.

5번은 '사회 불평등을 타파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갈등론만이 긍정합니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타파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임.) [3점]

○ 게임 방법: 갑, 을은 번갈아 가며 질문에 각각 '예', '아니요' 중 하나로 응답한다. 각 질문에 틀리게 응답하면 0점을 받고, 옳게 응답하면 50점을 받거나 랜덤 박스에서 카드를 뽑을 수 있다. 랜덤 박스에는 '100점 받기' 카드와 '점수 교환' 카드가 있고, 이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는다. '점수 교환' 카드를 뽑으면 직전 회차까지 누적된 자신의 점수와 상대방의 점수가 바뀐다. 게임은 4회차까지 진행되며 게임이 완료될 때까지 자신의 점수는 알지만 상대방의 응답과 점수는 알 수 없다. 게임이 완료된 이후 누적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며 누적 점수가 동점인 경우 승자는 없다. 표는 회차별 질문 및 갑, 을의 응답과 누적 점수를 나타낸다.

| 회차 | 질문 | 응답자 | 응답 | 누적 점수 | |
|----|-----------------------------------|-----|-----|-------|-----|
| | | | | 갑 | 을 |
| 1 | A는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하는가? | 갑 | 아니요 | 50 | 0 |
| 2 | (가) | 을 | 예 | 50 | 100 |
| 3 | A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가? | 갑 | ㉠ | 100 | 50 |
| 4 | B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 을 | ㉡ | | |

— < 보 기 > —

ㄱ. A와 달리 B는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ㄴ. (가)에는 'B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은 '예'이다.
 ㄹ. 을이 승자라면 ㉡은 '예'일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문의 지독한 게임 사량이 보이네요. 5번은 진화론과 순환론을 통한 퍼즐 게임입니다. 룰을 보면, 맞게 대답하면 50점을 얻거나 랜덤 박스를 뽑는데, 이 랜덤 박스는 100점을 얻거나 점수를 교환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표의 1회차부터 봐봅시다.

A는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하는가?입니다. 이는 순환론의 성질을 드러내는 질문인데, 갑이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50점을 얻었기에 옳은 대답을 했네요.

즉 A는 순환론인가? 가 아니므로 A는 진화론, B는 자동적으로 순환론이 됩니다.

이제부터 가려져 있으니 선지를 봅시다.

ㄱ은 주어 끊고 보면 진화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B라고 합니다. 우리 B가 순환론임을 알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ㄴ은 B가 순환론인가?라는 질문을 (가)에 넣을 수 있냐고 묻는데, 2회차를 보면 을이 예라고 대답하여 100점을 얻은 모습입니다. 랜덤박스에서 100점이 나온 것이네요. 즉 옳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B는 순환론이 맞으니까 ㄴ은 옳은 선지입니다.

ㄷ은 3회차를 봐봅시다.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건, 늘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3회차를 보면 갑과 을의 주장이 뒤바뀌어 있는데, 이는 랜덤박스에서 뽑은 것일 것이므로 옳은 답을 한 것입니다. A는 진화론이 맞으니까 예가 들어가 ㄷ도 옳은 선지입니다.

ㄹ은 을이 승자임을 가정하고 있는데, 을이 이기려면 랜덤박스를 뽑아 100점을 얻든, 점수를 바꾸든 해야 합니다. 즉 옳은 답을 해야 하는데, 서구 중심적 사고는 진화론이므로 A입니다. 즉 예가 아니라 아니요인 것이죠. 즉 틀린 선지입니다.

ㄴ,ㄷ이 옳으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랜덤박스라는 요소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느낌..


6.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갑과 을은 A~C가 적힌 카드 중 무작위로 선택된 카드 한 장을 각각 자기 이마 위에 붙이고 있으며, 자신의 카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이마에 붙어 있는 카드에 적힌 내용에 대해 진술한다.


갑: 을의 카드에 적힌 태도는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봅니다.

을: 갑의 카드에 적힌 태도는 자기 문화 정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사: 둘 다 옳게 진술했군요.



갑



을

- ① A는 타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B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C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C는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 ⑤ C와 달리 A는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엔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ABC를 판정해보면, 갑, 을은 모두 옳은 진술입니다.

갑은 'B는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봄'(B는 상대주의)

을은 'A는 문화 정체성 유지에 기여'(A는 자문화 중심주의)

이므로, A는 자문화 중심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선지가 ABC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바로 가봅시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 국수주의 변질은 A(자문화 중심주의)이므로 오답

3번 / 동등한 가치는 B(상대주의)이므로 오답

4번 / C(문화 상대주의)는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오답

5번 / 무비판적 수용은 C(사대주의)의 성질이므로 오답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과 △△국이 장기간 교류한 결과, A국에서는 A국의 언어와 △△국의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B국에서는 전통 의복과 □□국 이주민의 의복이 결합된 새로운 의복이 유행하게 되었다. C국에서는 ○○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유한 종교가 사라지고 ○○국의 종교만 남게 되었다.

- < 보 기 > —
- ㄱ. A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ㄴ. C국에서는 문화 변동 후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 ㄷ. B국과 달리 C국에서는 비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 ㄹ. A국과 B국 모두에서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번은 문화 변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시문을 보면, A국에선 변동의 결과 세모국의 언어가 추가되었으므로 문화 병존

B국에서는 전통 의복과 네모국의 의복이 융합되어 새로운 요소가 생겼으므로 문화 융합

C국은 고유 문화가 사라지고 대체되었으므로 문화 동화

ㄱ -> A는 문화 동화 -> 오답

ㄴ -> C국 문화 다양성 증대 -> 문화 동화는 다양성 감소이므로 오답

ㄷ -> B국은 의복 문화, 즉 물질문화의 전파이고 C국은 종교 문화, 즉 비물질문화의 전파이므로 정답

ㄹ -> 문화 병존과 문화 융합 모두 자문화의 정체성 유지되므로 정답

답은 ㄷ, ㄹ의 5번입니다.

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밈(meme)은 기존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재해석·변형하는 문화이다. 뉴 미디어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이 밈에 접근하고 이를 재가공하여 다시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쉽고 빠르게 만들었다. 밈은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대중이 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밈 문화의 발달은

(가)

- ① 사회 규범과 가치관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
- ② 문화를 획일화하여 개인의 독창성을 약화시킨다.
- ③ 고급문화를 대중화하여 평균적인 문화 수준을 높인다.
- ④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여 개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 ⑤ 대중을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문화 주체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8번은 통신 매체와 정보 사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심심찮게 나오는 유형이죠.

전형적인 독해 문제이므로, 제시문을 먼저 봅시다. '밈은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대중이 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대목에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답 선지도 보면,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2번과, 제시문과 동떨어진 내용을 이야기하는 1,3,4번이 있겠습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병은 역할을 나누어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정리했다. 표는 각 학생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정리 내용,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이다. 단, A~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 학생 | 역할 | 정리 내용 | 평가 |
|----|---------------------|---------------------------|----|
| 갑 | A와 달리 B만 가진 특징 제시하기 |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맞음 |
| 을 | B와 C의 공통적인 특징 제시하기 |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 맞음 |
| 병 | A와 C의 공통적인 특징 제시하기 | (가) | 틀림 |

- ① A는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② B는 다수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통계 처리에 적합하다.
- ③ A와 달리 C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 ④ C와 달리 B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가)에는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9번은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을 A,B,C 판정한 후에 풀어야 하네요.

갑을 보면, B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B는 참여 관찰법입니다.

을을 보면, 참여관찰법과 C의 공통점으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C는 면접법입니다. 자동으로 A는 질문지법이네요.

선지를 봅시다.

1번 / A(질문지법)은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 합니다. 질문지법은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므로 틀렸습니다.

2번 / B(참여 관찰법)은 통계 처리에 적합하다는데, 이는 양적 연구의 특징이므로 틀렸습니다.

3번 / A와 달리 C(면접법)은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는데,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면접법은 연구 대상자와의 라포, 즉 정서적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4번 /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파악은 면접법에서도 가능합니다.

5번 / A와 C의 공통점으로, 틀린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는 맞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10.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은 회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다. 또한, 회사 내 외국인으로서 급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 을은 교통사고 이후 생긴 장애로 인해 회사에서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호소했지만 동료들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했다.

- ①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②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 열세라는 특성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 ③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④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

10번은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시문을 봅시다.

갑의 경우,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이 나타납니다.

을의 경우, 장애와 종교에 따른 차별이 나타납니다.

공통점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점은, 5번으로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될 수 있다' 이네요

1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며, 계층 구성 비율은 A가 60%, B가 10%, C가 30%이다. 표는 부모 세대 전체 인구 대비 세대 간 이동한 자녀의 비율을 이동 양상별로 나타낸 것이다.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 이동 양상 | A→B | A→C | B→A | B→C | C→A | C→B |
|-------|-----|-----|-----|-----|-----|-----|
| 비율(%) | 5 | 30 | 2 | 3 | 3 | 7 |

- 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 ②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이 같은 자녀보다 많다.
- ③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 수의 5배 미만이다.
- ④ 자녀 세대의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 ⑤ 부모의 계층이 중층인 자녀 중 상층에 속한 자녀의 수는 하층에 속한 자녀의 수의 2배이다.

11번은 3대 표분석 중 하나인 계층 구조 분석입니다. 오답률 4위네요.

우선 부모 세대의 정보를 통해 A,B,C를 판정해 봅시다. 피라미드형이므로 비중은 상<중<하이고, A가 60, B가 10, C가 30이므로

B가 상, C가 중, A가 하가 되겠네요.

이동 양상 표를 보면, A(하)에서 B,C로 35%가 상승 이동, A로 5%가 하강 이동을 하였으므로 자녀 세대의 하층 비율은 30%입니다.

B에서 A,C로 5%가 하강 이동하였고, B로 12%가 상승 이동 하였으므로 자녀 세대의 상층 비율은 17%입니다.

그럼 중층 비율은 100-47=53%네요.

1번을 보면,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므로 틀렸습니다.

2번을 보면,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이동하지 않은 자녀보다 많다는데, 이동 양상 표의 모든 수를 더하면 50이므로 같아서 오답입니다.

3번을 보면,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5배 미만이라고 합니다. 상승 이동은 A->B, A->C, C->B로 총 42%이고, 하강 이동은 나머지 8%로 5배 이상이네요. 즉 오답입니다.

4번을 보면, A(하층)의 60%에서 35%가 이동하였으니 동일한 비율은 25%, 자녀 세대의 비율이 30%이므로 25/30, B(상층)의 10%에서 5%가 이동하였으니 5/17, C(중층)의 30%에서 10%가 이동하였으니 20/53으로, 비율로 보면 하층이 가장 높으니 정답입니다.

5번을 보면, 부모 중 / 자녀 상은 C->B로, 7%입니다. 부모 중 / 자녀 하는 C->A로, 3%입니다. 2배 차이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12. 다음 자료는 서술형 문항 및 학생의 답안과 교사가 부여한 점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3점]

[문항] B의 특징을 A와 비교하여 3가지 서술하시오.

| 답안 | 점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정도가 높다. ○ A와 달리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input type="text" value="(가)"/> | 2점 |

* 옳은 답변은 1개당 1점, 틀린 답변은 1개당 0점을 부여함.

< 보 기 >

ㄱ. A에 비해 B는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
 ㄴ. B와 달리 A는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ㄷ. B에 비해 A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ㄹ. (가)에는 'A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번은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입니다.

문항을 보면, 3개 중 2개가 맞았다고 합니다.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과,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인 건 모두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문장 두 개가 동시에 맞거나 틀려야 하므로 맞은 거겠죠. (가)에는 틀린 문장이 들어가야 하구요. 그래서 B는 관료제입니다. A는 탈관료제구요.

ㄱ을 보면 관료제가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는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탈관료제의 특징이죠.

ㄴ을 보면 A만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는데, 이는 둘 다 맞는 설명이기에 틀렸습니다.

ㄷ을 보면 탈관료제가 관료제에 비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는데, 이는 옳습니다. 관료제는 주어진 절차와 방식을 고수하는 특징이 있어 유연한 대처가 어렵죠.

ㄹ을 보면, 관료제가 탈관료제와 달리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한다는데, 효율성 중시는 둘 다 맞는 설명이기에 틀린 문장이고, (가)에는 틀린 문장이 들어가야 하므로 옳습니다.

즉 정답은 ㄷ, ㄹ 5번입니다.

13.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인들은 각자의 서로 다른 배경, 관심, 동기 등에 따라 사회 현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행동한다. 그들이 취하는 결정과 행위에 따라 사회는 재구성된다.

— < 보 기 > —

- ㄱ. 개인에게 사회 구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본다.
- ㄴ.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 ㄷ.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 ㄹ.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번은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유형으로 말하자면, 원래는 1번급으로 거져주는 문제로 여겨졌지만, 2026 9모와 2026 수능에서 헛갈리는 독해 문제로 나와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은 유형입니다. 저도 실전에서 틀렸던..

다행히 이번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제시문을 보면 개인의 결정과 행위가 사회를 재구성한다고 나와 있으니, 이는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러면 답은 ㄴ, ㄹ 4번이네요. 개인을 사회보다 우선하는 선지들입니다.

14.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의 A 집단은 주류 사회의 교육 방식에 반대하고 ㉠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만들어 아이들을 교육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류 사회의 반대가 거셌다. 새로운 교육 방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 A 집단의 사회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이 교육 방식은 대부분의 학교에 도입되었다.

— < 보 기 > —

ㄱ. ㉡ 이전에 ㉠에는 반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ㄴ. ㉡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ㄷ. ㉡으로 인해 ㉠은 하위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화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번은 전형적인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문제입니다.

제시문에서 A 집단은 주류 사회의 교육 방식에 반대, 또 주류 사회도 A의 교육방식을 반대한다고 나오니 반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운동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 도입되는 주류 문화의 성격을 띠니다.

ㄱ을 보면 과거의 반문화 특성을 말하므로 옳습니다.

ㄴ을 보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죠.

ㄷ을 보면 반문화(하위문화)->주류문화의 양상이 같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ㄱ,ㄷ 3번입니다.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대학교 ㉠ 기계 공학과를 졸업한 후 ㉡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여 ㉢ 부장으로 재직했었다. 재직 당시 인공 지능 로봇의 도입으로 대규모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지자 회사를 계속 다닐지 퇴사 후 창업을 할지 ㉣ 고민에 빠졌었다. 갑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 자진 퇴사 후 재직 시절에 회사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조직해 활동했던 ㉥ 사내 로봇 동호회 경험을 토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를 창업하였다.

- ① ㉠은 공식 조직, ㉥은 비공식 조직이다.
- ② ㉡은 이익 사회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③ ㉢은 귀속 지위이다.
- ④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 ⑤ ㉤은 갑의 역할에 대한 제재이다.

15번은 사회 조직과 역할이 모두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을 풀 때는, 제시문의 문장 간 연결성과 맥락을 거의 파악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지를 보고 제시문에서 발췌하여 읽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1번을 보고, ㉠이 공식 조직, ㉥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면, ㉠ 부분과 ㉥ 부분만 읽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기계공학과는 공식, 사내 로봇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므로 정답이네요.

틀린 선지도 봅시다.

2번은 회사를 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칭하므로 오답

3번은 ㉢ / 부장을 귀속 지위로 말하므로 오답입니다. 성취 지위죠.

4번은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역할 갈등으로 말하므로 오답입니다. 역할 갈등이 되려면 일단 복수의 역할에 중첩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나오죠.

5번은 자진 퇴사는 역할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에는 A~C만 존재하고, A~C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고, B는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갑국은 (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인구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이다.

그림은 (가), (나) 지역별 전체 인구 중 A~C의 수혜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가) 지역에서 A의 수혜자 비율(%)은 10, 15, 5, 5의 합인 35이다. (가) 지역의 A, B의 중복 수혜자 비율(%)은 15, 5의 합인 20이다. 세 개의 원이 중복된 영역에 있는 수치는 각 지역의 인구 중 A, B, C의 중복 수혜자 비율을 의미한다.

(가) 지역

(단위: %)

(나) 지역

(단위: %)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① 갑국 인구의 90% 이상이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자이다.
- ② A와 C의 중복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1.5배이다.
- ③ 갑국 인구 대비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수의 비율은 20% 미만이다.
-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많다.
- 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이다.

16번은 이번 모의고사 오답률 1위였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는 항상 1~2위를 다투곤 하죠.

우선 A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부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 부조죠.

B는 강제 가입이 원칙->사회보험입니다. 그럼 C가 사회 서비스입니다.

인구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라고 합니다. 기억해 둡시다.

벤 다이어그램에 아주 친절하게 중복 여부별로 수가 나누어져 있으니, 바로 선지로 가봅시다.

1번 / 갑국 인구의 90% 이상이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자라는데, A 지역에서 90%, B 지역에서 80%이므로 오답입니다.

2번 / A와 C의 중복 수혜자 수는 (가) 지역의 10%, (나) 지역의 15%입니다. 하지만 비율이 아닌 수라고 했으니, (나) 지역의 사람 수가 3배 많으므로 1.5배가 아닌 4.5배가 되겠습니다.

3번 / 사회 서비스 수혜자의 비율은 (가), (나) 지역에서 전부 35%이므로 20% 미만이 아닙니다.

4번 / 상호 부조의 원리는 사회 보험으로, B 비중은 (가)에서 50%, (나)에서 55%이므로 (나) 지역이 더 많습니다.

5번 /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로 A,B입니다. 둘 다 비중은 75%로, 인구 차이가 3배이므로 이 또한 3배 차이가 나겠네요. 즉 정답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매우 애용하는 유형입니다. 2026 9모의 15번이 이러한 문제의 끝판왕 격 난이도라 할 수 있는데, 유형 정복을 위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1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 AI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한 교육이 고등학생의 학습 몰입도와 ㉡ 융합적 사고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 1] AI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한 교육은 고등학생의 학습 몰입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AI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한 교육은 고등학생의 융합적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 몰입도는 과제 집중도,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감 등을, 융합적 사고력은 사고 유연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을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했다.

고등학생 100명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도록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고 A 집단에만 한 학기에 걸쳐서 AI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했다. 자료 분석 결과, [가설 1]은 채택되고, [가설 2]는 기각되었다.

— < 보 기 > —

- ㄱ. 갑의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
- ㄴ. A 집단은 실험 집단, B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 ㄷ. 종속 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타나 있다.
- ㄹ. 갑의 연구 결과는 ㉡의 향상을 위한 ㉠의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연구 절차에 관한 문제네요. 알아야 하는 내용은 선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ㄱ은 연구가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실험법을 사용했으므로 일원론입니다.

ㄴ은 A집단에만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실험집단, B는 통제집단으로 옳습니다.

ㄷ은 종속 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타나 있다는데, 가설 밑에 학습 몰입도와 융합적 사고력을 척도화할 수 있는 요소로 바꾸어 나타냈으므로 옳습니다.

ㄹ은 가설 2가 기각됨에 따라 융합적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오답입니다.

ㄴ,ㄷ이 옳아 정답은 3번입니다.

18.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여러분, 최근 유행하고 있는 러닝(running)에 대한 연구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러닝을 통한 건강 증진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갑



을

저는 사회·문화 현상 이면에 담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닝의 유행 현상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러닝의 유행에 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

- ① 갑의 관점은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갈등과 대립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③ 갑의 관점과 달리 병의 관점은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다.
- ④ 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개인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 ⑤ 갑의 관점과 병의 관점은 모두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18번은 소위 말하는 기갈상 문제입니다. 갑을병이 각각 어떤 관점인지 봅시다.

갑은 사회 각 부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말하므로 기능론

을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말하므로 갈등론

병은 개인의 의미 부여를 말하므로 상상론입니다.

1번은 상상론의 설명이므로 오답

2번은 갈등론의 설명이므로 정답

3번은 기능론의 설명이므로 오답

4번은 상상론의 설명이므로 오답

5번은 거시적 관점의 설명인데, 병의 관점은 미시적 관점이므로 오답

정답은 2번입니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임.)

[3점]

[수행 과제] 일탈 이론 A ~ C의 특징 2가지를 서술하시오.
(옳은 설명은 1개당 1점, 틀린 설명은 1개당 0점을 부여함.)

[학생 답안]

| 학생 | 작성 답안 |
|----|---|
| 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 <input type="text" value="(가)"/> |
| 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와 달리 B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 <input type="text" value="(나)"/> |
| 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는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 작용 과정에 주목한다. ○ <input type="text" value="(다)"/> |

[채점 결과 분석] 갑 ~ 병의 평균 점수는 1점임. 갑의 점수는 을에 비해 낮고, 병에 비해 높음.

- ① B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한다.
- ② C와 달리 A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 ③ (가)에는 'A와 달리 C는 일탈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나)에는 'A는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다)에는 'C와 달리 B는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교육청과 평가원은 일탈 이론을 퍼즐 없이 내면 죽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채점 결과 분석을 봅시다.

갑은 을에 비해 낮고, 병에 비해 높다고 하고, 갑~병의 평균이 1점이므로 갑이 1, 을이 2, 병이 0입니다.

즉 작성 답안에서 을의 문장은 무조건 옳고, 병의 문장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을은 B가 일탈 규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말하므로, B는 낙인 이론입니다.

병은 C가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 작용 과정을 주목한다는데, 이는 차별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지만 틀린 설명이어야 하므로 C는 뒤르켐입니다. A가 차별 교제 이론이네요.

선지를 보면, 1번 /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는 뒤르켐(C)이므로 오답

2번 /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건 거시적 관점인 뒤르켐이죠.

3번 / 갑의 첫문장은 차별 교제 이론을 맞게 설명하므로 옳고, 그림 (가)에는 틀린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A와 달리 C가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고 하였는데, 학습 과정은 차별 교제 이론, 즉 A의 설명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즉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 (나)는 맞는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이지만 A는 차별 교제 이론이므로 오답입니다.

5번 / (다)에는 틀린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2차적 일탈 발생은 낙인 이론만이 가지는 초점이므로 정답이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 표는 갑국의 연도별 인구 관련 통계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구분 | t년 | t+50년 | t+100년 |
|-----------------------------|----|-------|--------|
| 50년 전 대비 해당 연도 전체 인구 증가율(%) | . | -20 | 50 |
|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 20 | 25 | 25 |
| 유소년 부양비 | 40 | 40 | 50 |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 ~ 14세 인구)}} \times 100$$

$$* \text{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15 ~ 64세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text{유소년 부양비} + \text{노년 부양비}$$

— < 보 기 > —

- ㄱ. 유소년 인구는 t년과 t+50년이 같다.
- ㄴ. 노령화 지수는 t년이 t+100년의 2배이다.
- ㄷ.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과 t+100년이 같다.
- ㄹ. t+50년의 총부양비는 t+100년의 노년 부양비보다 작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은 그냥 고령화 관련 표 분석 문제 고정이죠.

우선 나라가 갑국 하나네요. T년의 전체 인구를 1000으로 둡시다.

그러면 T년은 1000, T+50년은 800, T+100년은 1200입니다.

유소년 인구 비율이 바로 나와 있으므로, 유소년 인구에서 T년은 200, T+50년은 200, T+100년은 300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를 통해, 부양 인구는 T년 500, T+50년 500, T+100년 6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이 둘을 빼면 노년 인구가 나오는데, T년 300, T+50년 100, T+100년 300입니다.

ㄱ을 보면 유소년 인구가 T년과 T+50년이 같았는데, 둘 다 200이므로 같습니다.

ㄴ을 보면 노령화 지수는 T년이 $300/200$ 으로 1.5, T+100년이 $200/200$ 으로 1로 1.5배이므로 틀렸습니다.

ㄷ을 보면 부양 인구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 T년과 T+100년 모두 50%로 같습니다.

ㄹ을 보면 T+50년의 총부양비는 $300/500$, T+100년의 노년 부양비는 $300/600$ 이므로 T+50년의 것이 더 큼니다. 즉 오답입니다.

ㄱ,ㄷ이 옳아 답은 2번입니다.

길었던 해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느정도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9월 모평을 쉽게 만든 버전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퍼즐형 문제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표분석도 16번과 20번이 상당히 쉬운 편이었어서 무난했지만, 생각보다 11번이 복잡하여 쉽기만 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준킬러를 내려면 보통 쉽게 나오는 유형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나오던 곳에서 어렵게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1등급컷은 3월 표본의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작년 3월보다는 높은 44~45점으로 예측됩니다. 만점자 비율도 1% 정도까지는 볼 정도로, 극악하게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고 함정 문제도 개념이 잡혀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